

## 그라츠 공과대학(TU GRAZ)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공과대학 건축학과

2016-19349

이정은

### 1. 개요 및 선정이유

오스트리아 그라츠는 비엔나, 할슈타트, 잘츠부르크와 같이 유명한 여행지는 아니지만 몇 년 전 오스트리아 여행에서 우연히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인 도시의 인상이 좋아서 서울대학교 국제교류대학 목록에 그라츠 공과대학을 보고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라츠 공과대학에서 건축학과가 유명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유럽 내에서 치안과 거주 환경이 매우 쾌적한 편이며, 주변 국가들로 여행이 쉽습니다.

### 2. 수업

그라츠 공과대학에서 교환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은 German intensive course와 정규 course, intensive course가 있습니다. 수업에 관한 후기는 건축학과 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German intensive course는 정규학기 개강 전에 한 달 동안 독일어를 강도 높게 익힐 수 있는 수업입니다. 해당 수업에는 그라츠 공과대학의 교환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라츠 내에 독일어를 배우려는 타대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학기 시작 전에 친구들을 두루 사귀기에 좋습니다.

정규학기 내의 수업은 서울대학교의 일반 수업처럼 학기 전반동안 진행되는 course(\*정규코스라고 칭하겠습니다.)와 일주일 혹은 2주 동안 진행되는 intensive course가 있는데, 건축학과에서는 주로 정규 코스를 듣게 됩니다. 건축학과와 경우 lecture형식의 수업보다 seminar형식의 수업이 많은데, (\*서울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경우 교류대학에서의 lecture는 15시간 당 1학점, seminar 및 실습수업은 30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됩니다.) 그라츠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대부분 seminar형식의 수업입니다. 따라서 1-2주 간 매일매일 수업에 참가한다 해도 30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정규코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학점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일주일 간 세미나에 참여하여 현지 학생들과 멋진 파빌리온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수업은 본교 건축설계스튜디오에 해당하는 'projekt'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master과정의 수업이지만 설계수업을 6개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을 허용해줍니다. 수업 시간은 월-금 9:00-16:00이고, 본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디벨롭한 설계를 교수님께 크리틱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라츠 공과대학의 건축학과는 8-9개의 부서로 다시 나누어져 특화되어 있습니다. 'projekt' 수업도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친환경 건축, 도시 건축, 미디어건축, 건축기술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건축설계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다면 주중에 여행을 다닐 수 없고, 매일 설계실에 가야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스튜디오 그룹 내 친구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고, 교수님들과 사이트답사를 같이 다녀오면서 교환프로그램을 한껏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사진1 Barcelona Field Trip 중 교수님과 학생들과 담소

### 3. 생활 및 행정

그라츠 내 거주등록이나 계좌개설, 보험처리문제, 기숙사등록은 그라츠 도착 후에 담당자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저는 추가적인 항목과 그라츠 생활을 하면서 익힌 나름의 팁을 작성해보겠습니다.

#### -현지 계좌 개설

계좌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국제학생증 검용으로 체크카드를 들고 가실 텐데, 필요할 때마다 atm기에서 출금하여 쓰셔도 됩니다. 은행 별로 ATM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Raiffeisen Meine Bank의 ATM이 출금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숙사비 납부나 보험료 납부, 현지장학금 수혜 등을 위해서는 현지계좌가 있는 것이 수수료도 없고 송금절차도 간단하여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저는 Hauptplatz의 Sparkasse에서 무료로 학생계좌를 개설했고 환율이 괜찮을 때 한 번에 돈을 옮겨두어 교환학생기간 내내 잘 사용했습니다. 그라츠 거주등록 후에 미리 예약을 하고 예약날짜에 가서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 -유심

현지 유심은 많은 종류가 있지만 저와 제 주변사람들은 대부분 Hofer의 유심인 HoT를 사용했습니다. 유심칩은 Hofer라는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고, 어플을 설치하여 데이터사용

량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단위로 8GB에 10유로 정도였고, 오스트리아 외 EU 국가에서는 8GB 중 3.7GB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내에서 전화도 가능합니다. 한 달 내에 8GB를 모두 사용할 경우 어플에서 추가로 데이터를 충전해야 합니다.

#### -식사 및 생필품 구매

오스트리아의 외식물가는 그다지 저렴한 편이 아니고, 여행경비를 고려한다면 그라츠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주로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여 기숙사에서 조리해 먹게 됩니다. 마트의 종류는 SPAR, BILLA, HOFER, LIDL 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가까운 마트에 주로 가지겠지만 LIDL의 채소 및 과일 가격이 다른 마트에 비해 저렴합니다. 한국의 맛과 유사한 우유는 FOLL MILCH이고 쌀은 룬드콘을 드시면 됩니다. 일요일에는 중앙역의 spar외 모든 마트가 문을 닫습니다. 그라츠의 아시아 식료품점은 이시아시아와 보보큐가 있는데, 종류는 이시아시아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날마다 입고해 있는 한국 제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기김치가 없는 날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주로 간단한 케밥이나 햄버거를 먹게 됩니다. Jakominiplatz 주변의 카파도키아 케밥, 양카라 케밥 집이 맛있습니다. Freigeist의 베이컨 햄버거도 맛있습니다. Jakominiplatz의 area5나 공과대학의 MENSA는 경치가 좋아 약속장소로 좋았습니다.

생필품 구매는 한국의 올리브영과 유사한 DM, BIPA 그리고 다이소 느낌의 TEDI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트램을 타고 도심에서 이동하면 이케어나 Murpark라는 쇼핑몰도 있습니다.

Jakominiplatz와 Hauptplatz가 그라츠 내 중심지이고, 주변의 슬로츠베르크는 그라츠의 경관을 감상하기 좋습니다.

#### -해외배송

제 경우 출국 시에 큰 캐리어와 기내용 캐리어를 가져갔고 학기 중에 한국에서 해외배송 택배를 받았습니다. EMS로 보내면 한국에서 그라츠로 배송하는 가격이 10만원 정도로 꽤 비쌉니다. 반대로 귀국 시에는 2개의 박스를 그라츠에서 한국으로 보냈는데, 훨씬 더 저렴했습니다. 10kg 단위로 가격이 산정되므로 우체국에서 무게를 맞추시면 됩니다.

#### 4. 여행

봄 학기의 경우 4월 부활절 방학을 이용하여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딱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말여행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비엔나, 인스부르크, 할슈타트, 잘츠부르크를 여행하고 그리스, 스페인, 덴마크, 영국, 크로아티아, 체코,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슬로베니아를 여행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교환학생을 간다면 (그라츠에서 기차로 편도 6시간이지만) 인스부르크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겨울에는 오스트리아에 접해있는 알프스에서 스키를 탔고, 여름에는 아쿠아 돔이라는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스위스와 유사하지만 인스부르크만의 색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고 old town의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 5. 느낀 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진로고민과 무력함을 핑계로 무작정 해외교환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당시에는 유럽생활이나 여행에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환학생을 신청하기 위해 오랜만에 어학 자격증 공부를 한 것을 시작으로 준비기간서부터 교환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 생각보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거주문제, 보험문제, 금전문제 등 자취생활과는 결이 다른 외국생활을 위한 절차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갔으며 수강 신청기간동안에는 외국 교수님들과 수많은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표하며 많은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교환학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활력 있는 생활에 대한 강박도 있었지만 그라츠의 환경과 주변의 친구들로 인해 점차 순간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설계수업에서 바르셀로나를 답사했던 경험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월요일 3시까지 카사밀라 앞으로 오라는 공지만 있고 비행기서부터 숙박 등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오전 중에 교수님, 친구들과 답사를 다녔고, 오후에는 저 혼자 이곳저곳을 여행했습니다. 거리를 5-6시간씩 같이 걷다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영어로 말하는 게 서툴러 창피했지만 그들은 끈기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걷다가 좋은 곳이 있다면 앉아서 교수님과 학생들은 어울려 그 공간을 즐겼습니다. 이 여행 이후에 무서워하기보다는 일단 해보자는 마음가짐이 생겨 외국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이처럼 생각보다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프로그램 기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몇몇의 여행, 설계수업은 오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귀국한지 얼마 안 된 지금은 막상 다녀오지 않은 것처럼 얼떨떨하지만 사진첩을 정리하면서 값진 경험들을 되새기려 합니다.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제교류 프로그램 담당자 분들,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공과대학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